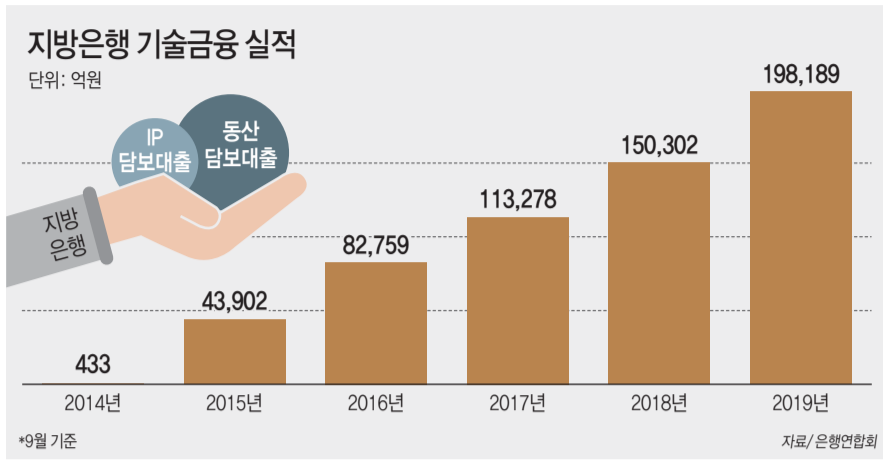


‘부동산담보 이제 그만’ IP-동산담보대출 팔건은 지방銀

6대 지방銀 기술금융 실적 19.7조
지난 2015년 동월비 3.3배 늘어나
IoT 원격시스템 도입 등 대출 확대

지방은행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과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한다. 담보가 없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 지역경기 살리고, 지역금융도 회복하겠다는 포석이다. 내년부터는 IP·동산담보대출이 부실할 경우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회수지원 기구도 마련할 계획이어서 지방은행의 주 수익원으로 IP·동산담보대출이 자리잡을 모양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기준 6대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은 19조 7411억원(4만5210건)이다. 지난 2015년 9월 4조3571억원에서 3.3배(15조384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6조5449억원, 6조1786



억원 공급해 1·2위를 기록했다.

기술금융은 미래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금융은 신용기술평가서로 대출해 주는 신용기술대출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으로 대출해 주는 IP담보대출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지식재산금융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IP담보대출 실적을 기술금융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

은행의 IP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기술금융 실적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의 동산담보대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외의 기계·재고자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남은행의 지난 6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억원(92억원) 늘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의 경

우 부동산에 비해 담보가치가 쉽게 떨어질 수 있고, 부실 시 담보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가 적잖은 면이 있었다”며 “사물인터넷(IoT) 담보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훼손이나 분실우려가 감소해 동산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 IP·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중은행이 돈을 모아 전문기관을 세워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 은행의 대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IP·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자산 담보가 소진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기구가 설립되면 지방은행의 IP·동산 담보대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IP·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

재 부산은행은 지난달 IP담보대출 상품 ‘창조형 혁신기업대출’을 선보였다. 지적재산권(IP) 보유기업 및 기술혁신 벤처기업 등 자금력은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경남·대구은행은 동산담보 대출시 담보물에 IoT 원격 관리시스템을 탑재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동산자산에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에 긴급 출동해 도난이나 분실, 고의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이 기술금융에 평가되는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동산담보대출 실적도 평가돼 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부실화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담보가 없지만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환전·송금 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NH농협은행은 내년 2월 말까지 ‘모두가 즐거운 겨울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 100만원(1명)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500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농협은행을 해외체재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송금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100명을 추첨해 NH포인트 3만점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환전 또는 영업점에서 해외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농협몰 3000원 할인 ▲와이파이도 시락(포켓와이파이) 20% 할인의 제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부산은행-칭다오농상은행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BNK부산은행은 중국 칭다오농상은행과 협약식을 갖고 신용공여한도 상향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과 칭다오농상은행은 신용공여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은 약 1억 7000만 달러로 확대한다. 칭다오농상은행은 부산은행에 약 1억 1000만 달러로 한도를 늘리고, 부산은행은 칭다오농상은행에 6000만 달러로 한도를 상향한다.

부산은행 방성빈 경영기획본부장은 “칭다오농상은행은 부산은행의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행의 공동성장을 위해 상호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R·R·G’ 3대 경영원칙으로 모두의 가치창출 실현”

(Reset) (Rebuild) (Game)

하나금융 ‘출범 14주년’ 기념식
김정태 회장, 넥스트 2030 선포

하나금융그룹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넥스트(NEXT) 2030 경영원칙’을 선포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일 서울 명동사옥 대강대에서 그룹 출범 14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올 10년은 가치관과 기술이 급변하고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라며 “신뢰와 휴머니티(Humanity)를 기반으로 손님과 직원, 주주, 공동체를 아우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룹의 경영원칙을 재정립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3대 경영원칙으로 ▲리셋(Reset) ▲리빌드(Rebuild) ▲게임(Game)을 제시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 CEO 외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함영주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직원 대표와 함께 ‘하나금융그룹,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주제로 미래 키워드를 코딩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1일에 출범한 하나금융그룹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위한 3대 경영원칙을 선포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이익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추구(Reset)하며 이를 위해 사업모델과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축(Rebuild)하되 몰입과 소

통, 실행을 통해 게임(Game)처럼 즐겁게 해야 한다”며 “리셋, 리빌드, 게임이라는 3대 경영원칙을 통해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리빌드’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회와 손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업모델(Business)

를 창출하고, 다양한 협업과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세스(Process)를 구축해 손님과 직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한편, 몰입하고 소통하는 유연한 인재(People)인 금융 디자이너를 육성키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넥스트 2030 경영원칙’ 선포와 함께 그룹 출범 이후 사용해 오던 경영 슬로건인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를 내년부터 손님과 주주, 직원, 공동체를 아우르는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경영원칙 선포를 계기로 사회공헌을 통한 가치창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하나 파워 온 임팩트’ 등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등 그룹 내 사회공헌을 총괄하는 ‘행복나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 사임... 여승주 ‘원톱’

임기 석 달 남기고 물러나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사진)이 임기를 석 달 남기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화생명은 차남규 부회장·여승주 사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여승주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뒀던 차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퇴임했다.

차 부회장은 2002년 한화그룹이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지원



부문 총괄전무를 맡으며 한화생명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CEO재임 기간 ▲자산 100조원 돌파 ▲수입 보험료 15조원대 달성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12년 연속 AAA 획득 ▲생명보험사 최초 베트남 진출 ▲보장성 보험 판매 위주의 체질 개선 ▲연평균 4300억대의 당기순이익 달성 등을 이루며 경영능력을 입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우리은행, 전상욱 신임 CRO 선임

우리은행은 2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로 전상욱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상무(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상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KAIST) 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연구실적 과 전문지식을 가진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약 7년간 통화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아더네티즌, 베어링포인트, 에이티커니, 프로티비티 등 전문기관에서 기업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모델을 개발하



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진두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 상무의 임기는 12월 4일부터 2년으로, 우리은행이 민영화 이후 외부에서 영입한 두 번째 C레벨 임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최고디지털책임자(CDO)로 황원철 상무를 영입해 현재 은행을 비롯한 그룹전체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